

이벽의 성교요지(聖敎要旨) 11 절-30 절

이벽의 성교요지(聖敎要旨) 11 절

예수님의 말씀과 귀한 비유가 세상에 알려지고
기적이 다시 잇달아 일어나도다.
예수님은 모든 종족을 돌보시며
상한 자를 거두시는 목자로서
아침저녁 세월을 보내시도다.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며
더러운 것 씻어내고 재앙을 없이 하며
무덤에 묻힌자를 자리에서 일으키고
옷섭만 만진 부인도 병이 깨끗이 나았도다.
파도 위를 걸어 배에 오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여 위험한 배를 구하시고
우리가 둘러서 보는 가운데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크나큰 기쁨가운데 죽은 자를 소생시키시도다.
그러나 타교를 믿으면 도와주지 아니하시니
심판하심이 모두 그의 뜻대로였다.
죄를 범하면 벌을 내리고
또 널리 구원하는 막중한 권한을 호올로 지니셨으니
너희는 진실로 하느님의 권세와 영광을
충만하게 보전하고
항상 마음속에 공순함을 품으며
외면의 포악함과 내면의 죄를 씻고
악과 싸워 이겨내어라.

◎윗 절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그 권능을 나타내신 것을 기록한 것이다.

성교요지(聖敎要旨) 12 절

여기저기 기록된
이사야 예언서는
기록이 비록 오래되었으나
"허물어진 집을 다시 지으리라" 하였는데,
이는 말세를 미리 예언하고 계획한 것이로다.
폐원이 옥토로 화하였으니
주를 칭송하고 응대함에
누가 속임이 있으리오.
거리에 메아리치는 노랫소리
골짜기까지 가득 응하니
예수님의 덕이
공자(孔子)가 닦은 아홉가지 덕보다도 높도다.

◎윗 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이사야 예언서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한 것이니 곧 하느님께서 그 모르시는 바가 없음을 가히 믿으라 한 것이다.

성교요지(聖敎要旨) 13 절

일꾼과 노동자, 가난한 이와 부자
좌우 모든 사람과 서로 친근하게 사귀며
간곡한 말씀을 진실되이 복종하면
양반이나 상놈, 모두 다 평등하게
하느님의 초대를 받으리로다.
신혼한 부인도 무리와 함께 나아와
예수님께 향유를 바치고
포도주를 부르며,
성유를 들고 끓어앉아
거룩한 피 흘리심을 연민하여 부르짖도다.

◎윗 절은 예수님 임종의 비참함과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구속하신 까닭을 기록한 것이다.

성교요지(聖敎要旨) 14 절

예수님 돌아가심에
은혜로운 비가 내리고
자비한 구름이 가득 끼이며
진동하는 우뢰소리로
온 세상 사람에게 하느님의 권능을 보이시도다.
예수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제단을 쌓으시어
하느님께 약속하신 궤와 제기를 바치시도다.
재물과 은돈을 셈하여
가난한 이에게 쓰도록 나누어주고
인륜과 사물의 강령을 세우시니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모시고 제사하도다.
씨족이 고단하고 미약할지라도
조손 간에 교리를 문답하며
부지런히 벌어서 하느님께 바치면
슬픔과 울음이 없으리니.(곧 행복을 서약하시리라)
우상은 더럽고 사곡스러운 것,
한낱 쇠붙이요 목석일 뿐이니
정도(正道)를 깨달아
음사(淫祀)의 풍습을 타파하고
가르침을 숭상하여
속된 풍습을 바꿀지어다.

◎윗 절은 예수님께서 세속을 권면하는 간절한 말씀으로 설교하시고 세상만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미 당신 목숨을 희생하셨으니 사람들은 마땅히 마음속 기쁘게 정성을 바쳐 신앙하며 그 본분을 다한 뒤 심판을 기다릴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찌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그 풍습을 바꾸지 아니하는가?

성교요지(聖敎要旨) 15 절

무덤을 열고 시체가 소생하여
공중을 넘어 하늘로 올라가

하느님 보좌 옆에 앉으시고
최후의 심판을 마련하셨네.
죄가 가벼우면 벌도 가벼우나
한번 지은 죄 설원하기 어려우니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지옥에 떨어짐을 저항할진저.

◎윗 절은 예수님 승천하신 뒤 만사를 기다려 죄를 심판하심을 말한 것이다.

성교요지(聖敎要旨) 16 절

예수님 제자들의
재주를 헤아려 선교를 부탁하시니,
제자들 도를 보호하고 지키며
계율을 닦고 후진을 가르치기에 힘써
밤낮으로 이를 명심하도다.
아이들은 계율을 외우며
부(賦)나 시를 택해 배우고,
연치(年齒)에 따라
어른들은 이치를 밝히 배우면
도가 원근에 고루 퍼지리로다.

◎윗 절은 사람은 마땅히 바른 도(道)를 구하여 배우기에 부지런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성교요지(聖敎要旨) 17 절

이에, 갓난애를 두고 살필진대
태중에서 태어나 잘 기르려면
배고파 우는 때에 젖을 급히 먹이고
숨에 싸서 자리에 누어야 하도다.
하물며 맑고 총명한 천품을 기르려면
어려서부터 잡욕을 금하고
원죄에 젖은 죄를 씻기 위해
일찍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

◎윗 절은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엔 사악스런 죄악이 아직 싹트지 않았으므로 일찍이 원죄를 씻어줘야 함을 말한 것이다.

성교요지(聖敎要旨) 18 절

어린애가 점점 자라 장정이 되매
죄에 물들어 아이 때와는 달리
간사한 마음을
겸손한 양 겉으로 꾸미어
해피한 웃음으로
깊은 마음속을 가리우도다.
그러므로 교만과 방종, 재난과 곤궁을
능히 쳐 이기지 못한다면
문득 악에 떨어져 한탄하나니,
어찌하여 죄를 씻을
기틀과 방술을 쓰지 않는고.

◎윗 절은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점점 죄악에 깊이 물들어, 악의 길에 떨어지기 쉬우므로, 마땅히 행실을 삼가 하고 죄를 방지하며 구원할 자를 찾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성교요지(聖敎要旨) 19 절

선비는 책읽기를 널리 좋아하여
책상에서나 자리에서나 부지런히 읽을 일이다.
거문고와 칼 놀이로 자주 노닐며
삼가 하고 돈독함을 오로지 모멸하고
썩은 벼슬로 관권의 허세를 부리며
부질없이 복을 탐내어 불공을 드리는
바리세인과 같은 무리들이여
모름지기 이러한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윗 절은 책을 읽는 선비가 거문고와 칼 놀이만을 즐기고 감정 내키는 대로 망령되어 행동하며 진실로 바른 道를 사모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죄인이 됨을 말한 것이다.

성교요지(聖敎要旨) 20 절

진흙길을 분주히 오가며
농사짓는 농부들
논에 물을 대고
안개 속에 씨를 뿌리며
찬이슬을 털고
먼지를 밟으며 부지런히 일하도다.
그리하여 가을날
먼 농장에서 추수하여
뜰 안에 가득 쌓으면
애쓴 보람 참으로 풍성 하도다.
하느님의 엄숙한 심판이
논과 밭에서도 이 같음을 생각하고
무릎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도를 심구(尋求)해야 하리로다.

◎윗 절은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의 삼 계절 동안 갖가지로 신고하며 농사를 짓고, 가을엔 풍성히 거둬들이기를 기원하듯, 진실로 바른 도(道)를 구하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죄인이 됨을 기록한 것이다.

성교요지(聖敎要旨) 21 절

공장(工匠)들은 자로 재고 도끼로 깎아
뛰어난 솜씨를 자랑하도다.
활이나 화살, 온갖 기명을
정교하게 혹은 조잡하게 만들고 지어 부어,
값을 흥정하여 값으로 상환하고
좋은 용천도(龍泉刀)를 서로 바꿈과 같이
너희도 진실로 죄를 깨달아
연이어 달려와 도를 닦을지어다.

◎윗 절은 공장(工匠)의 무리들이 비록 지봉(鉤心구심)이나 투각(鬪角)을 기묘하고 정교하게 만들지라도, 진실로 바른 도를 사모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죄인이 됨을 기록한 것이다.

성교요지(聖敎要旨) 22 절

저자 가에서 팔고 사는 행상들
산길이나 섬길이나, 평탄한 길이나 험한 길이나
바닷길을 오가며 돈을 벌어서
손바닥 안에 억만금을 희롱하여도
세금을 빈번히 바쳐야 하고
집안에 돈이 가득하여도
도둑을 근심하나니, 공을 닦아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 두어라.

◎윗 글은 행상인들이 산과 물을 건너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영리를 도모하듯, 진실로 바른 도(道)를 사모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죄인이 됨을 기록한 것이다.

성교요지(聖敎要旨) 23 절

가족들이 어른을 받들고
형제 자매들이 효성을 잘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며
어린이와 약한 자를 도우면 아름답도다.
집안에는 각박함이 비로소 사라지리니
중들을 불쌍히 여겨 아끼고
널리 인도의 근원을 보호하면
평화스럽고 강녕하며 마음이 기쁘고
안락하리로다.

◎윗 글은 한 집안 안에 화락한 기운과 상서로운 기운이 돌기를 능히 이같이 하면 그 효성과 우애가 진실로 가히 아름다움을 기록한 것이다.

성교요지(聖敎要旨) 24 절

현철한 사람을 불러들여
정사를 맡기면 충성을 다하여
반역을 막고 도둑을 제어하나니
공을 징험하여 벼슬에 봉하리로다.
빈리(관원)들끼리 서로 은폐하고 막을지라도
틈을 없이하고
몸소 행실을 아름다이 하며,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그 직책을 다한다면
그 공적이 어찌 너그럽고 광활하지 않으리오.

◎윗 글은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 그 몸을 다하고 수고로움을 다함에 능히 이같이 한다면 그 충성심이 가히 진실로 아름다움을 기록한 것이다.

성교요지(聖敎要旨) 25 절

새벽부터 높은 산에 오르고
밤새도록 망망한 대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험난한 괴로움 속에서라도
병자에겐 약을 보내 생명을 건지게 하고
흉년엔 식량을 풀어 굶주림을 건지면

세상의 황량함도 건지리로다.

땅이 기울면

견고한 언덕도 무너지는데

어찌하여 싸우고 헐뜨으며

더러움에 이끌려 들어가는고?.

◎윗 글은 선을 베푸는 사람이 사물을 비뚤어지게 보지 않고 능히 이같이 선을 행한다면 그 자혜로움이 진실로 아름다움을 말한 것이다.

성교요지(聖敎要旨) 26 절

행실을 삼가며

신앙을 마음 굳게 맹세하면

영예와 상찬이 혁혁히 빛나리라

하지만 눈을 딴 곳으로 돌리면

몰락과 죽음,

무서운 어둠의 지옥을 보리로다.

착한 사람이 무고히 화에 걸리어도

넓고 번창한 길이 막히며

한을 품고 죄에 빠지거늘

하물며 흉포한 사람이야.

◎윗 글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능히 그 분수를 다하면 진실로 바른 도(道)에 합치되는 일이나 오직 바른 도를 사모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능히 제 영혼을 스스로 구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성교요지(聖敎要旨) 27 절

독사같은 사당들은

당류(黨類)끼리 물어뜯고

감언이설로 사람을 찢으며

권세에 아부하며 허장성세를 부리네,

책임을 전가하며,

남을 원망하며

위세를 부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죄를 심판 받는 최후의 말세에

바닷가나 골짜기로 내어쫓길 것인데도

어찌하여 바른 도를 예비함이 적은고.

◎윗 글은 요즘 세상에 사악한 무리들이 횡행하며 착한 사람들을 해치는데 이들은 말일에 이르러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성토하실 것을 말한다.

성교요지(聖敎要旨) 28 절

판자와 기둥과 기와로

기이하게 지은 높은 탑들은

고작 그 양식과 제도를 자랑할 것일뿐.

--마음의 집이 아니며--

네 몸에 띠고 매단 장식품들은

외모만을 장식했을 뿐,

마음의 보배는 잃었어라.

미친개가 착한 이웃을 괴롭히면
 강직과 분함이 잠시 움츠러들지만,
 뱃속을 드러내어 방자히 하면
 모발이 가시되어 남의 비웃음을 살뿐이로다.
 아무리 좋은 고루거각(高樓巨閣)이라도
 다만 제 한 몸 주숙(住宿)하는 집일뿐이며,
 소와 낙타, 물소와 코끼리,
 짐승과 사자들은 몸집이 크지만
 형상이 괴이할 뿐 영혼이 없도다.
 어두운 밤
 불빛에 날아드는 하루살이요
 불빛을 바라보는 소경이나니,
 지난날의 착각을 부끄러이 뉘우치고
 하느님을 앙모하며 신앙하여라.

◎윗 글은 비유를 빌어서 예수의 도를 설교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마다 모두 이를 마땅히
 준행할 것이며, 영이 없는 미물과 같이 구원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성교요지(聖敎要旨) 29 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히신 고통과
 마침내 창끝 아래 죽으심을
 항상 생각하여라.
 머리에 는 가시관을 쓰고
 선혈로 붉게 물든 옷자락을,
 나무를 꺾어 매질을 하며
 목말라 물 찾으매 소금을 탄 포도주를 주고
 장단지를 마구 분질렀으나,
 예수님,
 은총 어린 목숨은
 더욱 증대 되었도다.
 거짚이 싹틈을 엄히 방지하시고
 잠시 떨리는 술잔을 사양하셨네.
 할미새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자취를 감추매
 낚시꾼에게 붙잡힌 고기와 같네.
 그러나 예수님,
 구멍 뚫린 자루를 삼베로 깎게 하고
 잎은 무성하나 과일이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며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지나
 피리 불고 환영하는 영광의 땅
 순()나라에 이르셨네.

◎윗 글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혹독한 수난과 하늘에 올라가신 영광을 항상 생각하며, 또
 그 생전의 언행을 깊이 생각하고 진실로 그 신심을 굳게 할 것을 기록한 것이다.

성교요지(聖敎要旨) 30 절

시든 풀잎을 흔들어 깨우고
(곧 의에 죽은 이를 높이 받들고)
악의 잡초를 뽑아 버리며
회개자를 용서하고
뉘우치지 못한 이를 구제하여
제(齊)나라 노(魯)나라의 자손들같이
여상(呂尙)이나 구양수(歐陽修)의 품격을 삼고,
먼 북쪽으로부터 중화[중국]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저물면 북두칠성으로 방향을 찾고
추위와 더위도 가리지 않고
지팡일 끌고
지구위 곳곳에 복음을 전하도다.

◎윗 글은 전도하는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교할때 험한 고생도 사양하지 않고 추위와 더위도 가리지 않고 오직 널리 세상을 구제 하고자 하니, 이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을 말한 것이다.